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민주 전북도지사 경선 '통합' 이냐? '정책' 이냐?

전북 위기 상황에 공감하나 풀어가는 방식이 이진 이원택 "분열된 지역 정치 통합, 구조적 위기 대응" 안호영 "중앙 정치 외풍 차단, 정책 중심 경쟁 구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경선이 이원택·안호영 두 후보 간 양자 대결로 본격화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지난 1일 밤 당 최고위원직 재명이라는 돌발 변수로 지역 정치 지형이 크게 흔들린 가운데 이원택·안호영 두 도지사 후보는 상반된 프레임에 앞세워 당원과 국민의 주도권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이원택 후보는 '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전북은 인구 감소와 산업 기반 약화, 지역경제 위축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며 "갈등과 분열로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주권 전북을 실현하겠다"며 정치적 통합과 사회적 연대를 핵심 가치로 제시했다. 경제 전략으로는 외부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 안에서 성장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내발적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재생에너지 산업, 피지컬 AI 기반 첨단 산업, 농생명 바이오 산업 고도화를 3대 축으로 내세웠다. 아울러 골목상권 회복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생활 밀착형 민생 정책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안호영 후보는 '정치화 경계'

를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며 다른 접근을 취했다.

그는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거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치러지는 매우 중요한 선거"라고 규정하며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선 거를 치러야 한다"며 "전북이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경선 흐름 자체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지금의 경선은 정책 경쟁이 아니라 차기 정당대회 등 중앙 정치 일정과 맞물린 정치적 계산 속에서 소비되고 있다"며 "전북의 선거가 다른 정치의 발판으로 활용되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누가 더 전북 발전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할 수 있는지를 평가받아야 한다"며 정책 검증 경쟁으로의 전환을 촉구했다.

안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 대전환을 기반으로 AI 반도체 등 국가 성장산업의 지방으로 확장하겠다는 분명한 방향을 갖고 있다"며, "에너지에 대한 풍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흐름을 전북의 기회로 연결할 수 있는 도지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채만금에 반도체 공장유치와 RE100 산단 조성 등 전북의 경제지도

를 바꿀 다양하고 굵직한 정책을 통해 전북 발전에 기여하겠다"며 "AI를 활용한 카이스트 납원 유지 등 현장에서 체험한 다양한 정책대안과 농어촌과 지방소멸 문제 해결, 복지확대 등 지역주민의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며 자신이 전북도지사로 선출되어야 할 당위성을 갖고 있음을 강조했다.

두 후보 모두 전북의 위기 상황에는 공감하지만, 풀어가는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원택 후보가 분열된 지역 정치를 통합해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라면, 안호영 후보는 중앙 정치의 외풍을 차단하고 정책 중심의 경쟁 구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지사 제명 사태 이후 형성된 정치적 긴장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각자의 메시지로 어떻게 풀어낼지가 주요 관건으로 꼽힌다.

두 후보는 6일 전주 MBC에서 정책 토론회를 한 데 이어 7일 오후 2시 합동 연설회에서 직접 맞붙는다.

지역 경제 회생 방안, 인구 감소 대응 전략 미래 산업 육성 로드맵 등 전북 현안을 두고 공약의 현실성과 실행 가능성을 검증하는 본격적인 정책 공방이 예상된다.

이어 8일부터 10일까지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도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본경선이 진행되며, 후보가 두 명인 만큼 결선 없이 최종 후보가 확정된다.

경선의 향방은 조직력이나 인지도를 넘어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전북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평가다. /오만호 기자



지선 대비 모의개표 나선 전북선관위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정확하고 공정한 개표관리를 위해 최근, 도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개표를 실시했다.

## 도민 삶의 질 진단... 전북자치도 사회조사 실시

도, 10일부터 29일까지 1만3515가구 대상 방문조사 나서 웰빙·건강·안전 등 7개 분야... 정책 설계 기초자료로

전북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과 사회 인식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29일까지 도내 14개 시군 1만3515가구를 대상으로 '2026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도민의 삶의 질 수준과 주관적 인식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07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도민 체감형 정책 설계의 핵심 기반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조사 분야는 △주관적 웰빙 △건강(의료) △사회통합 △안전 △환경 △가구·가족 △지역 특성 등 7개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와 의료 이용 사회적 신뢰 범죄 불안 기후변화 인식, 가족 관계 등 도민 생활 전반을 폭넓게 다룬다.

특히 올해는 2024년 국가데이터연구원에 의뢰하여 수행한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지표 및 사회조사 항목체계 개편 연구 결과를 적극 반영해 조사 항목과 지표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아울러 최근 사회적 이슈를 반영하여 결

혼·출산·보육, 기후변화, 사회갈등 등 주요 분야에 대한 신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정책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시간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조사도 병행한다. 전주는 문화유산 인지도와 교통 이용, 익산은 청년 정주여건과 반려동물 양육, 김제는 인구 변화와 치매 인식, 부안은 교통복지와 생활인구 정책 등 지역별 현안을 중심으로 별도 항목이 포함된다.

조사는 사전 교육을 이수한 조사원 301명이 직접 가구를 방문해 면접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는 통계 분석을 거쳐 12월 전북특별자치도 통계시스템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임철연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사회조사는 도민의 삶을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기초자료"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되어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사원 방문 시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전했다.

/오만호기자

전북자치도, '고능력 한우 가족시장 표시제' 첫 도입

전북특별자치도는 유전체 분석으로 선발한 고능력 한우의 가치를 시장에 반영하기 위해 임실축협 가족시장에서 '고능력 한우 가족시장 거래 표시제'를 시범 도입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경매 과정에서 고능력 한우와 그 자식 소(후대축)를 전광판에 표시해 개체의 품질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도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우수 한우 집단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유전체 분석 상위 20% 이내 한우를 '고능력 한우'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개량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2025년 출하된 고능력 한우 후대축의 1++ 등급 출현율은 53.8%로 전국 평균보다 12.3%포인트 높고, 마리당 약 102만 원의 추가 소득 효과가 확인됐다.

도는 표시제를 통해 고능력 한우와 후대축을 명확히 구분하고, 품질에 따른 가격 형성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만호 기자

### 국산 'RDA 승용마' 방목 시작

농진청, 11월까지 자연 방목 사육

농촌진흥청이 자체 개발한 국산 승용마 RDA 승용마가 제주 초원에서 본격적인 방목 사육에 들어간다.

농촌진흥청은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제주도 중산간 지역 난

지축산연구센터 초지에서 RDA 승용마를 방목 사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DA 승용마는 농촌진흥청(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이 개발한 국산 승용마 품종으로, 제주마의 강



인한 체질과 더러브렛의 체형을 접목해 2009년부터 개량해 온 말이다. 이번 방목은 말의 건강 증진과 스트레스 완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차원에서 추진된다. /오상근 기자

**2026 진안 방문의해**

**진안고원 JINAN GOWON**

## 전북자치도와 충남 150만의 생명수

# 23년이라는 진안군민의 노력과 시간이 담겨있습니다

## 잊지마세요! 진안용담호

## 함께 불러주세요! 진안용담호